

충청서해안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문화변동

이형원

(한신대학교박물관)

〈목 차〉

I. 머리말	IV. 충청서해안지역 재지집단과 외래
II. 보령지역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공존양상	집단의 상호작용
III. 서천지역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공존양상	V. 맺음말

I. 머리말

남한의 청동기시대 중기문화는 송국리유형을 비롯하여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검단리유형 등의 유물·유구복합체가 중심 분포지역을 달리하면서 공존한다. 이어지는 후기문화는 수석리유형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중기에서 후기¹⁾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선행문화와 후행문화는 필연적으로 공존했을 것이며, 이는 고고학자료에 반영된다. 즉 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형태의 정교한 조합을 토대로 한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전환기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남한 토착 재지문화에 외래문화인 수석리유형의 물질문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중·후기 전환기²⁾의 상호작용은 남한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³⁾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한 내 초현지역으로 상정되고 있는 지역은 중서부 해안지역과 영동지역이다. 이것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하 경로와 관계된다. 중국 요령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한지역 등장에 대해서 1990년대까지는 웅진 백령도를 비롯하여 보령 교성리,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유적 등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서해 연안 해로를 통해 남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고성 송현리·

1) 한국청동기학회와 한국고고환경연구소가 펴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시리즈(1-5권)의 시기구분은 송국리유형을 중기로, 원형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를 후기로 나누고 있다. 필자 역시 비파형동검단계에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를 후기로 한다(李亨源 2011; 이창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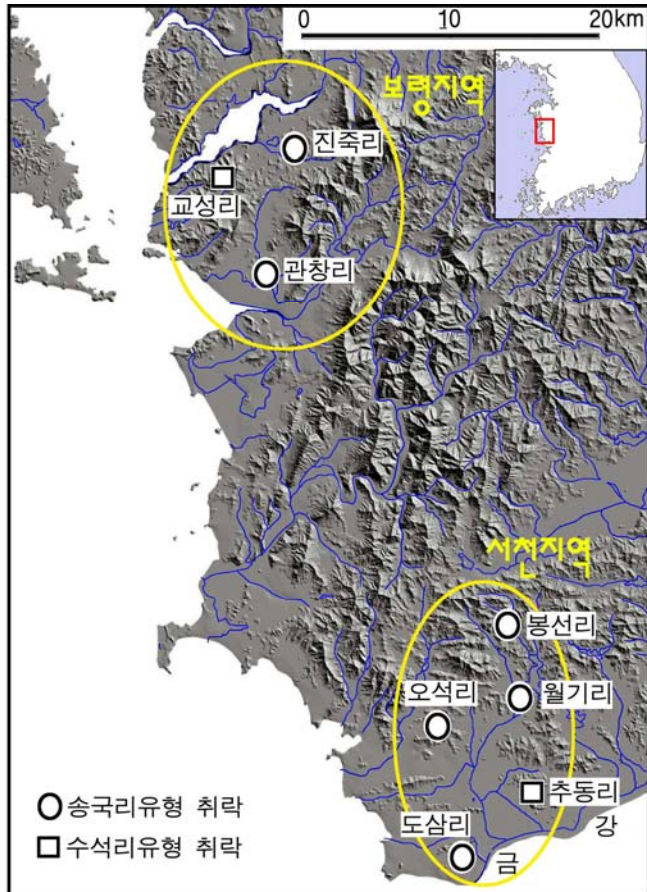
2) 엄밀한 시기 구분상으로는 후기로 분류된다.

3) 호서지역에 대한 검토(李亨源 2005; 丁女善 2010)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영남지역(黃外植 2008; 申英愛 2011; 이정은 2011), 강원지역(李亨源 2015a; 朴榮九 2015), 호남지역(이종철 2015)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삼포리·초도리, 양양 지리, 강릉 방동리유적 등 강원 영동지역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서 압록강-청천강-원산만-동해안 루트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본고는 충청서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는 시기의 재지문화인 송국리유형과 외래문화인 수석리유형의 문화접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찍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한의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朴淳發 1997). 그에 의하면 두 문화 사이에 긴장·갈등·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점토대토기문화인들에 의해 토착 고인돌사회가 점차 점토대토기문화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이 남하한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이 고인돌 밀집지역을 피해서 고지성 취락을 형성한 이후 공존한 것으로 보는 배타적 갈등론은 찬성하는 입장(金範哲 2001; 李亨源 2005)과 비판적인 견해가(서길덕 2006; 宋滿榮 2011)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하로 인해서 형성된 충청서해안지역의 선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 간의 접촉 양상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은 시도된 바 있지만(李亨源 2005),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여 보령지역과 서천지역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여 필자가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재지문화와 외래문화 사이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해보고자 한다.



〈도면 1〉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문화접변이 나타나는 충청서해안지역의 유적분포

II. 보령지역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공존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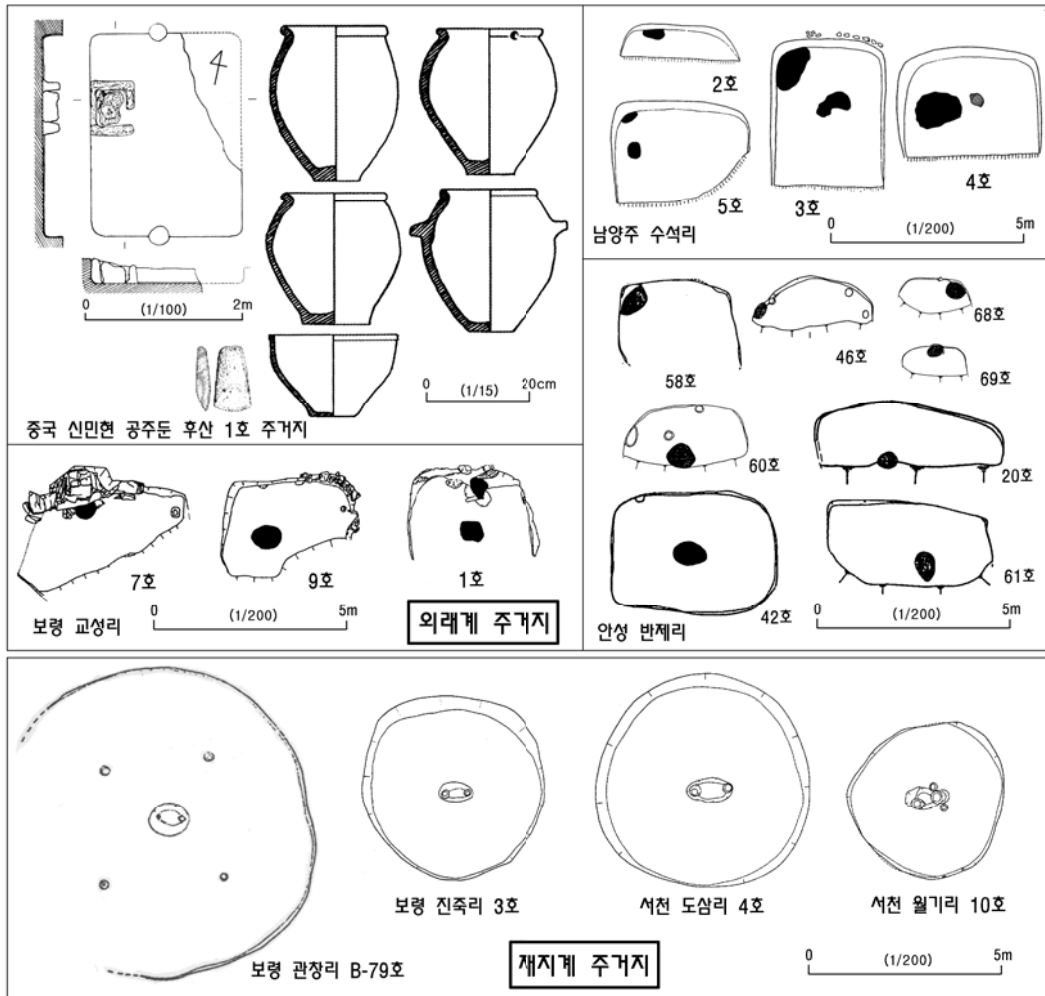
충청서해안의 보령지역은 청동기시대 중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유적 가운데 하나인 관창리유적(吳相卓·姜賢淑 1999; 李弘鍾 외 2011)과 교성리유적(國立扶餘博物館 1987)이 6.5km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재지계 취락인 진죽리유적(박양진 외 2013)에서도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교성리유적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도면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세 유적은 삼각형 형태를 띠면서 분포한다.

관창리유적과 진죽리유적은 중복관계로 볼 때, 방형의 휴암리식주거지가 이르고,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송국리식주거지에서만 점토대토기가 공반된다(도면 2 참조). 원형 송국리식주거지의 존속 기간 및 세부편년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학계의 현실을 고려해야겠지만, 송국리유형의 일정 시점부터 수석리유형의 물질문화가 병행한 것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지역의 송국리유형 유적(관창리)과 수석리유형 유적(교성리) 사이의 동시기성 및 접촉양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李亨源 2005),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성리유적의 수석리식주거지에서 송국리유형의 토기와 석기 공반
- ② 관창리유적의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수석리유형의 토기와 석기 공반
- ③ ①, ②현상과 더불어 두 유적의 유물(토기, 석기) 비교를 통해 병행관계 확인
- ④ 교성리취락은 외래주체(토기, 석기, 주거지), 재지요소 수용
- ⑤ 관창리취락은 재지주체(토기, 석기, 주거지), 외래요소 수용
- ⑥ 관창리유적의 초대형주거지에서 외래계유물이 출토되는 점에서 관창리집단의 최상위계층에서 외래계 물건(토기, 석기) 입수
- ⑦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 사이의 교류 : 외래문화 유입시점에 정보를 통한 모방 또는 물건의 이동, 그 다음 단계에 사람이나 기술의 이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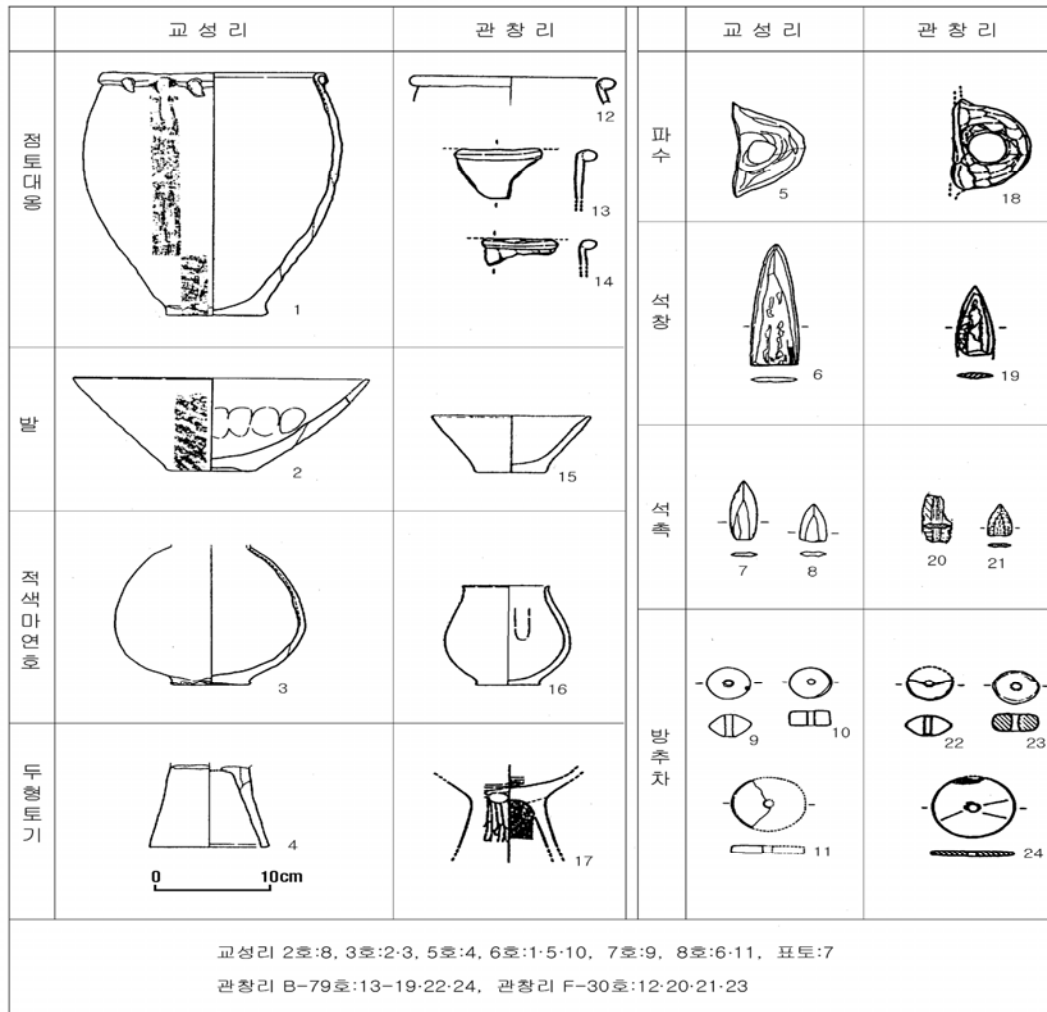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 가운데 자료의 맥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재지문화와 외래문화의 교류 양상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지견도 갖게 되었다.

관창리취락은 재지계주거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았던 과거의 생각과 달리, F지구에서 외래계 수석리식주거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F지구의 4호, 6호, 7호, 8호 주거지는 장방형 평면이며, 장축선상에 노지가 있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주거지는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 교성리, 남양주 수석리, 안성 반제리 등 외래계 취락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적에서 벽부노지 주거지와 함께 확인되고 있어서 그 계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장축노지 주거지를 벽부노지 주거지와 함께 외래계통의 주거지로 분류하고 있다(李亨源 2015a). 이 가운데 8호 주거지는 선행하는 9호 송국리식주거지와 중복관계를 가지면서 후행하는



〈도면 2〉 외래계 수석리식주거지와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재지계 송국리식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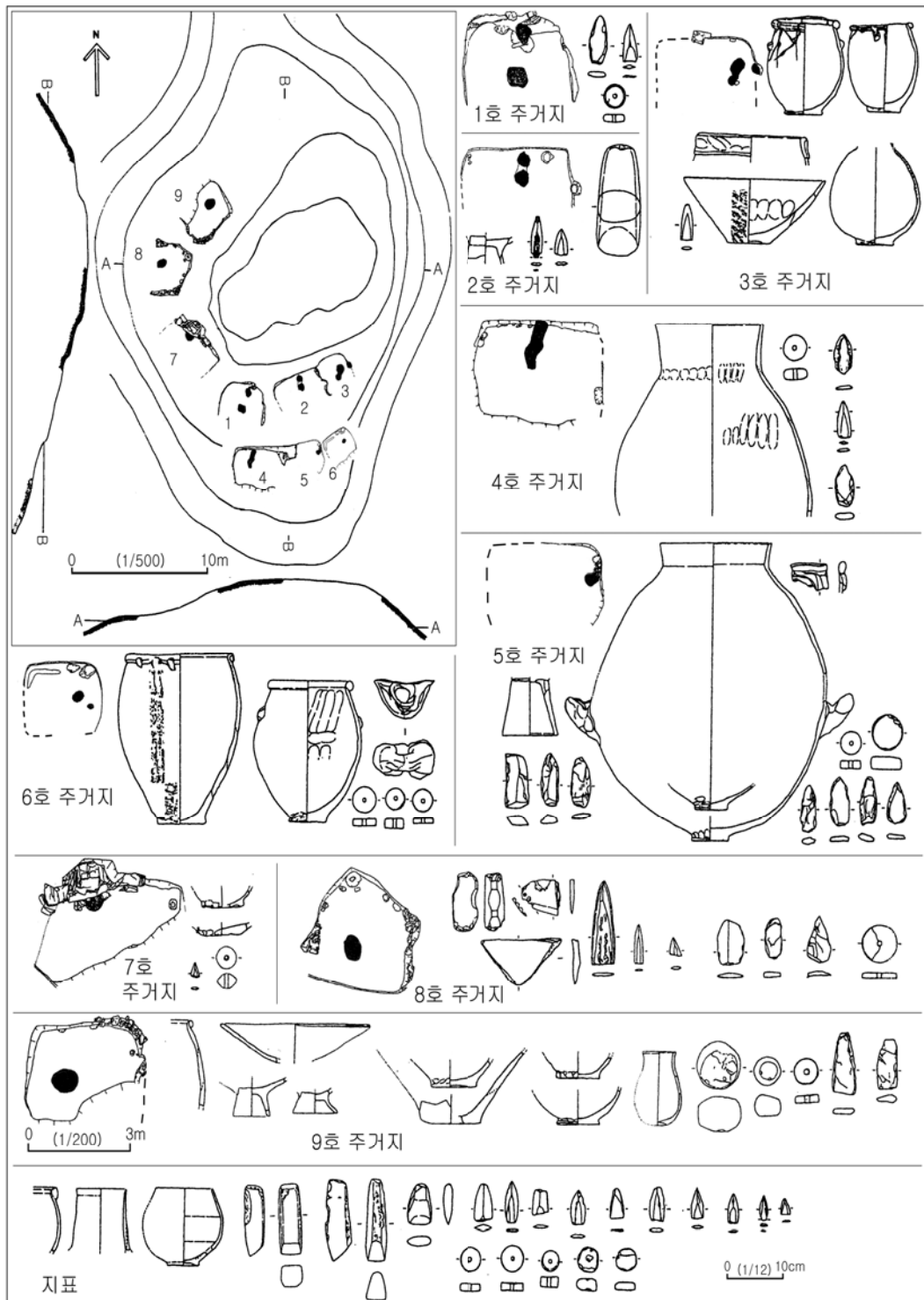
점도 이 장방형 주거지들이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인정할 경우, 관창리취락은 외래계인 수석리유형의 토기·석기뿐만 아니라, 주거도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F지구의 외래계 장방형주거지들에서는 재지계 토기만 출토된 점에서 볼 때, 거주인들은 관창리취락의 재지인들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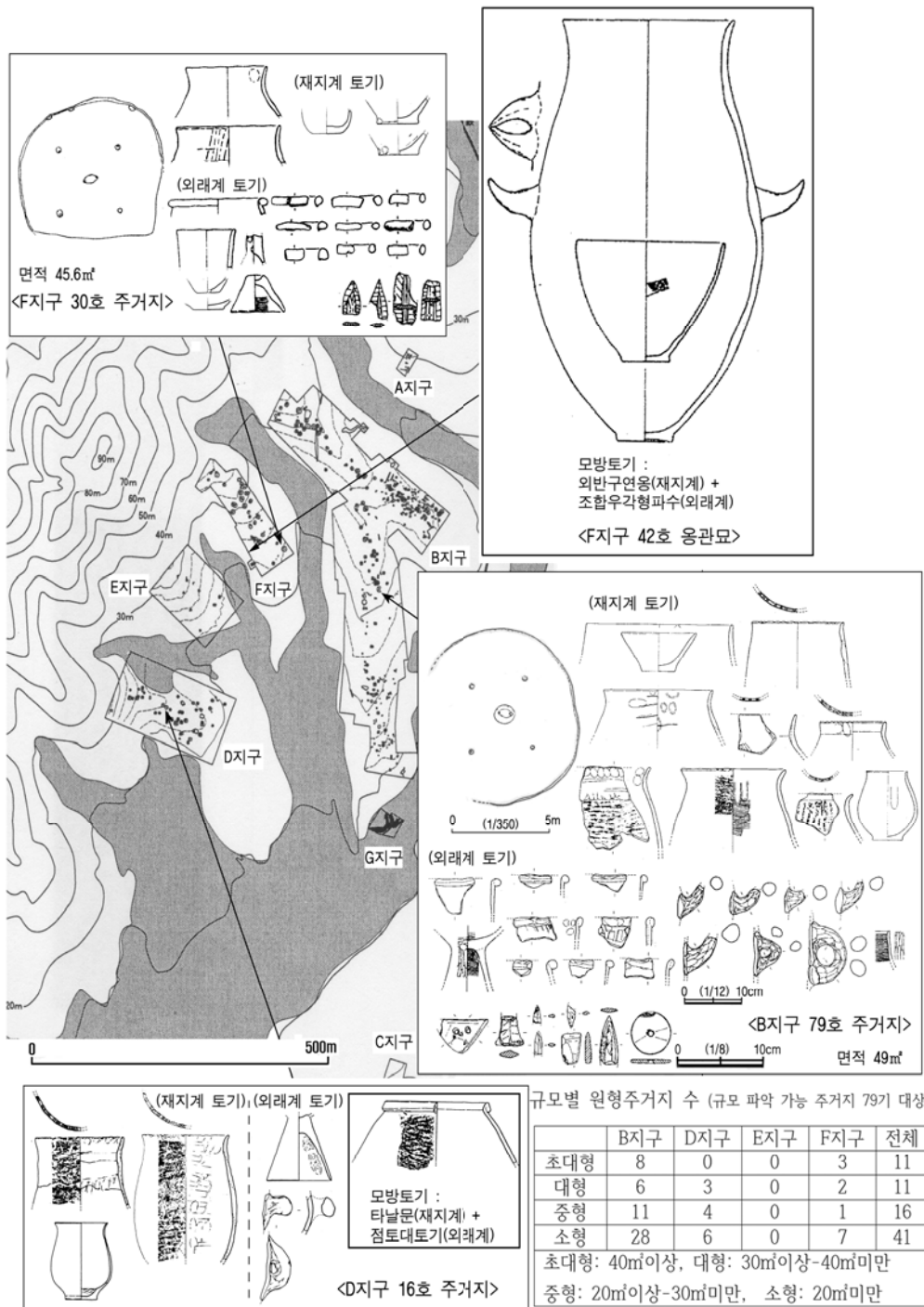
〈도면 3〉 보령 교성리유적과 관창리유적의 유물 비교(1/10)

〈표 1〉 보령지역 재지계(관창리, 진죽리)와 외래계(교성리) 주거지의 토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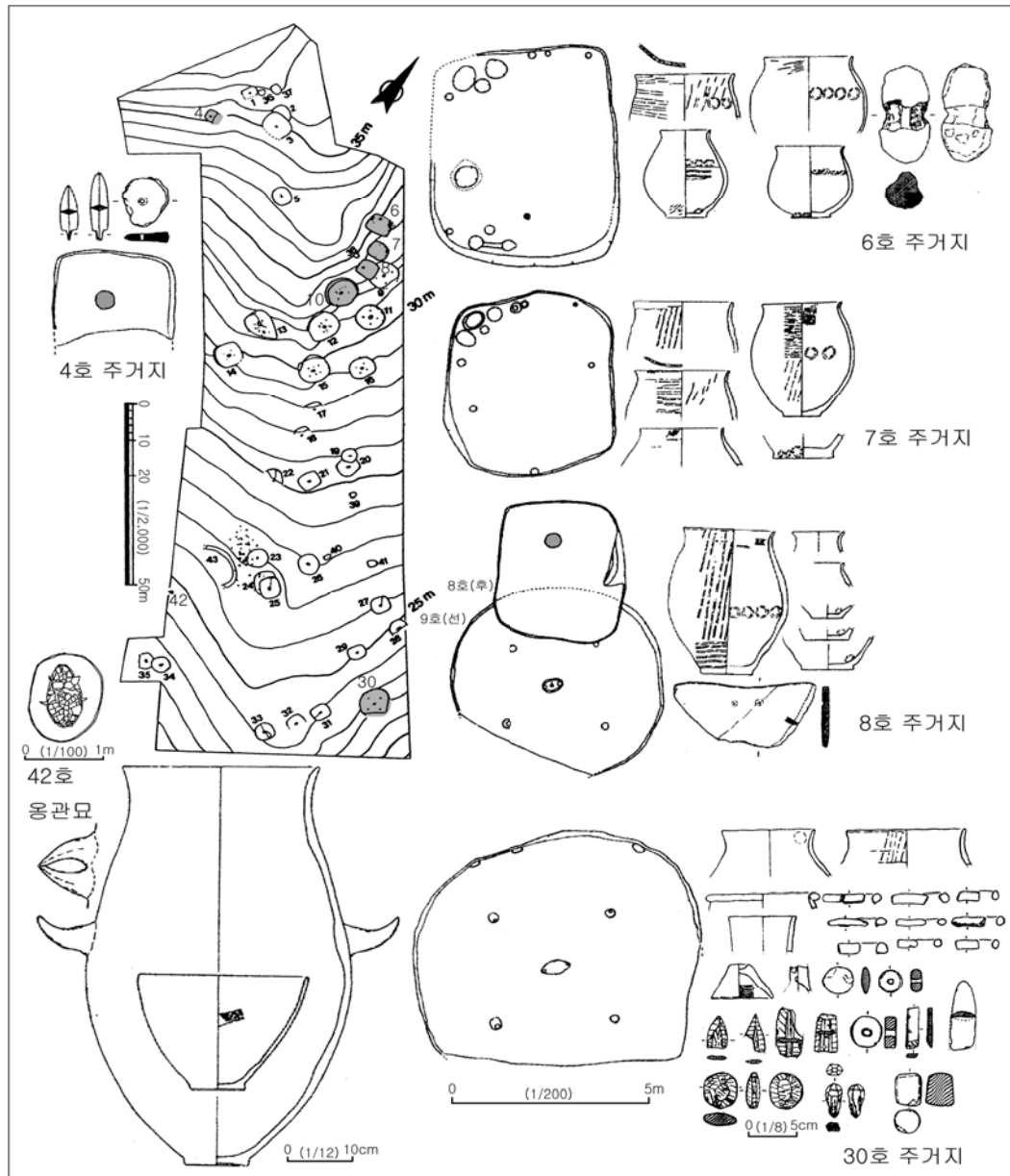
주거지	주거구조		재지계 토기		외래계 토기				
	재지계 (송국리식)	외래계 (수석리식)	외반구연 토기	적색마연 토기	점토대 토기	흑색마연 토기	두형 토기	환형 파수	조합우각 형파수
관창리B79호	●		●	●	■	■	■	■	■
관창리F30호	●		●		■	■	■		
관창리D16호	●		●	●	■	■	■	■	
진죽리 3호	●		●	●	■			■	■
진죽리 8호	●		●	●	■	■	■	■	■
교성리 2호		■					■		
교성리 3호		■		●	■				
교성리 4호		■				■			
교성리 5호		■		●	■		■		■
교성리 6호		■			■			■	
교성리 9호		■		●	■		■		



〈도면 4〉 보령 교성리취락(외래계) : 재지계 유물 공반



〈도면 5〉 보령 관창리취락(재지계) : 외래계 유물 공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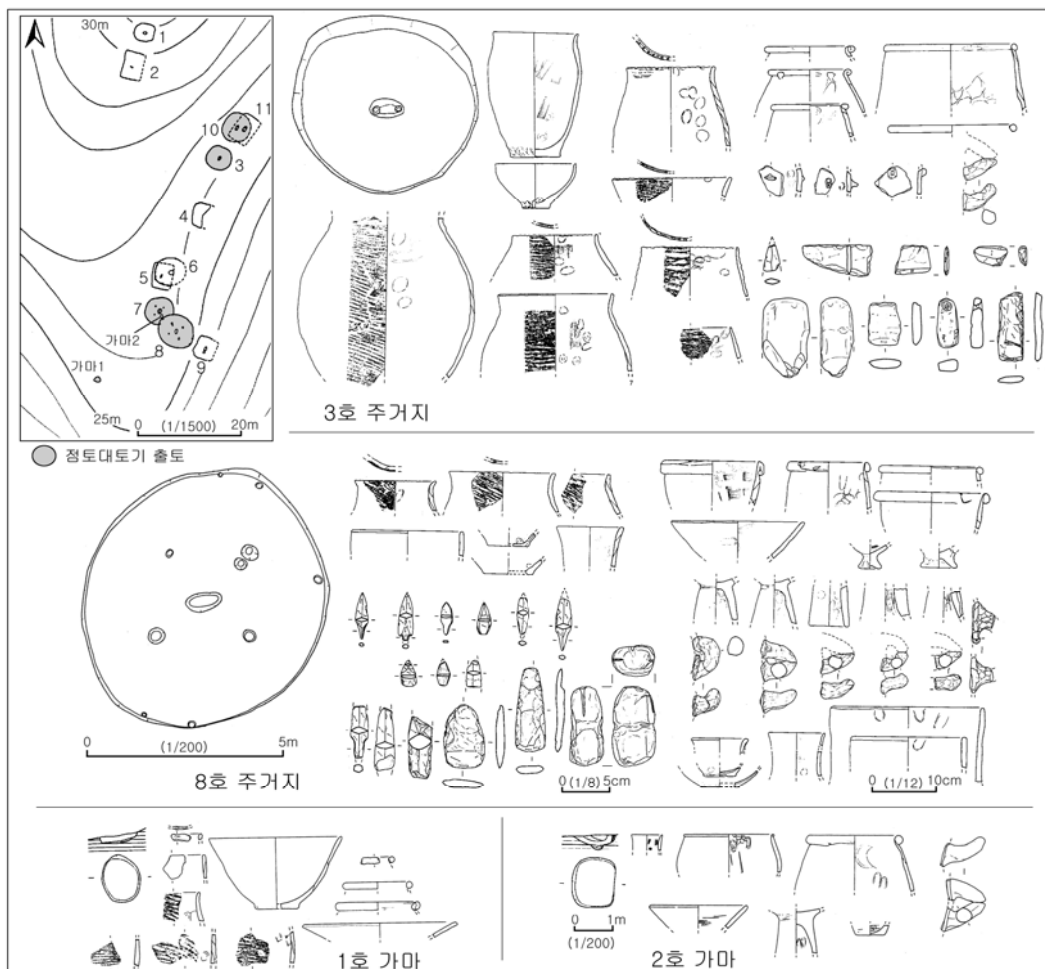
〈도면 6〉 보령 관창리취락(재지계) F지구 : 외래계 유물 공반, 외래계 주거 공존

또한 교성리취락 6호 주거지 및 관창리 B지구 79호, D지구 1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타날문 시문 원형점토대토기웅과 관창리 F지구 42호 옹관에 사용된 조합우각형파수부 외반구연웅은 재지계와 외래계 토기 제작기법이 결합된 것이다. 이와 같은 토기는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모방행위 혹은 절충행위의 결과물이다.

한편 보령 진죽리유적에서는 6기의 송국리식주거지 가운데 3호, 7호, 8호, 10호 주거지에서 재

지유물과 더불어 점토대토기관련 유물이 함께 나왔다.⁴⁾ 여기에서도 가장 대형에 속하는 8호주거지에서 외래계유물이 확인된 것은 관창리유적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호주거지와 8호주거지는 구순각목이나 평행타날이 시문되거나 문양이 없는 외반구연옹과 적색마연토기 같은 재지계 토기와 원형점토대옹, 흑색마연장경호, 두형토기, 파수 등 외래계 토기가 양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진죽리유적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토기 소성 가마에서 재지계 토기와 외래계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외래계 토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취락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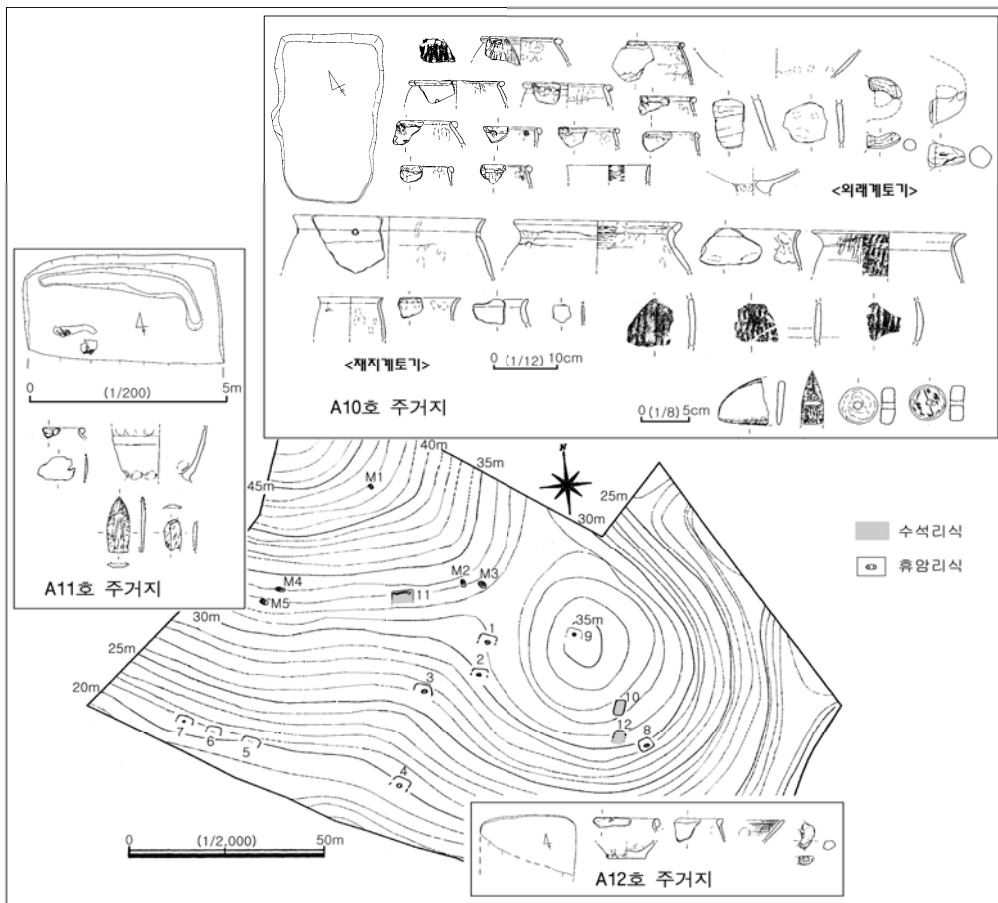


〈도면 7〉 보령 진죽리취락(재지계) : 외래계 유물 공반

4) 7호와 10호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 파편 일부만 출토되어 공반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

III. 서천지역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공존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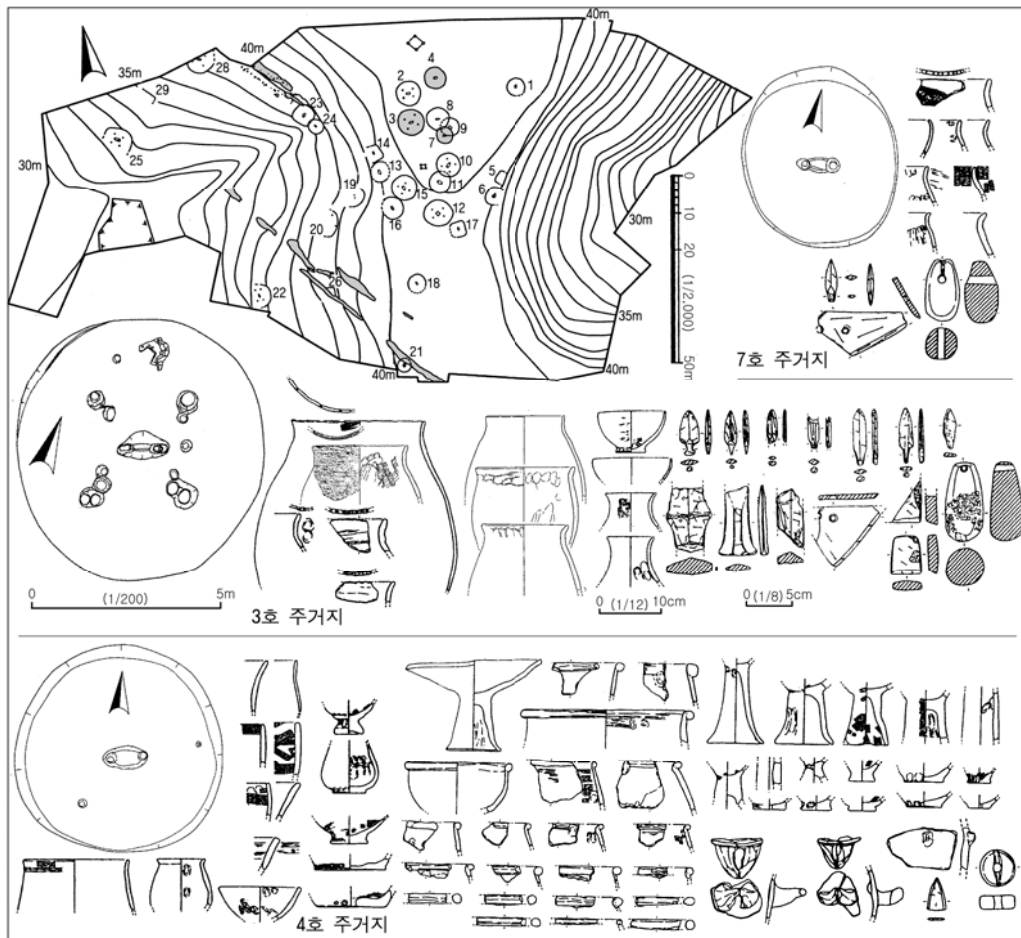
서천은 보령과 더불어 충청서해안에서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접촉양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지역이다. 수석리유형의 취락은 추동리유적(田鑑溶·李仁鎬·尹淨賢 2006)이 있으며,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국리유형 취락은 도삼리유적(李弘鍾·孫峻鎬·趙은지 2005)을 비롯하여 월기리유적(李弘鍾·孫峻鎬·朴性姬 2005), 오석리유적(李南奭 1996), 봉선리유적(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5) 등이 있다.



〈도면 8〉 서천 추동리취락(외래계) : 재지계 유물 공반

추동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중기의 휴암리식주거지 단계와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후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후기 취락은 수석리식주거 3기로만 구성되어 작은 규모이며, 이 가운데 A11호주거지만 편제된 장축선상에 노지의 흔적이 있으며, 나머지 A10호와 A12호 두 기는

노지의 존재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A10호의 경우 등고선이 높은 쪽의 장벽 중앙부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벽부노지와 관련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A10호 주거지를 대상으로 토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형점토대옹 1점과 흑색마연장경호 1점, 두형토기, 파수 등이 외래계이며, 외반구연토기 7점, 적색마연토기 1점 등은 재지계에 해당한다. 이 밖에 동체부편 가운데 평행타날문이 찍힌 것들이 다수 있는데, 재지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외래계 점토대토기 가운데 1점에서 타날문이 확인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술한 보령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외래계 토기와 재지계 토기의 공존양상 뿐만 아니라 토기제작과정에서 재지계와 외래계의 상호관련성을 말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도면 9〉 서천 도삼리취락(재지계) : 외래계 유물 공반

도삼리유적은 추동리유적에서 남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방형의 휴암리식주거지와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구상유구와 지상건물 등이 발굴되었다. 취락구조는 휴암리식(23호)→송국

리식주거지(24호), 휴암리식주거지(23,26호)→구상유구, 송국리식주거지(21호)→구상유구, 송국리식→송국리식주거지(9호→8호→7호, 11호→10호) 등의 중복관계와 점토대토기문화의 유물 공반(4호 송국리식주거지)⁵⁾ 양상 등이 참고된다. 이를 고려하면 도삼리취락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시기의 유구는 원형 송국리식주거지와 구상유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4호를 비롯하여 石權이 확인된 3호와 7호, 그리고 특정하지 않은 송국리식주거지 중 상당수도 동시기의 주거지로 생각된다.

도삼리취락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4호 주거지는 외반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와 같은 재지계 토기도 일부 있지만, 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파수 등 외래계 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이 4호 주거지는 면적이 20.1㎡로 중형 규모이다. 동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12호(41.9㎡), 28호(41㎡), 3호(38.6㎡) 주거지 등 초대형이나 대형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관창리취락의 초대형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공반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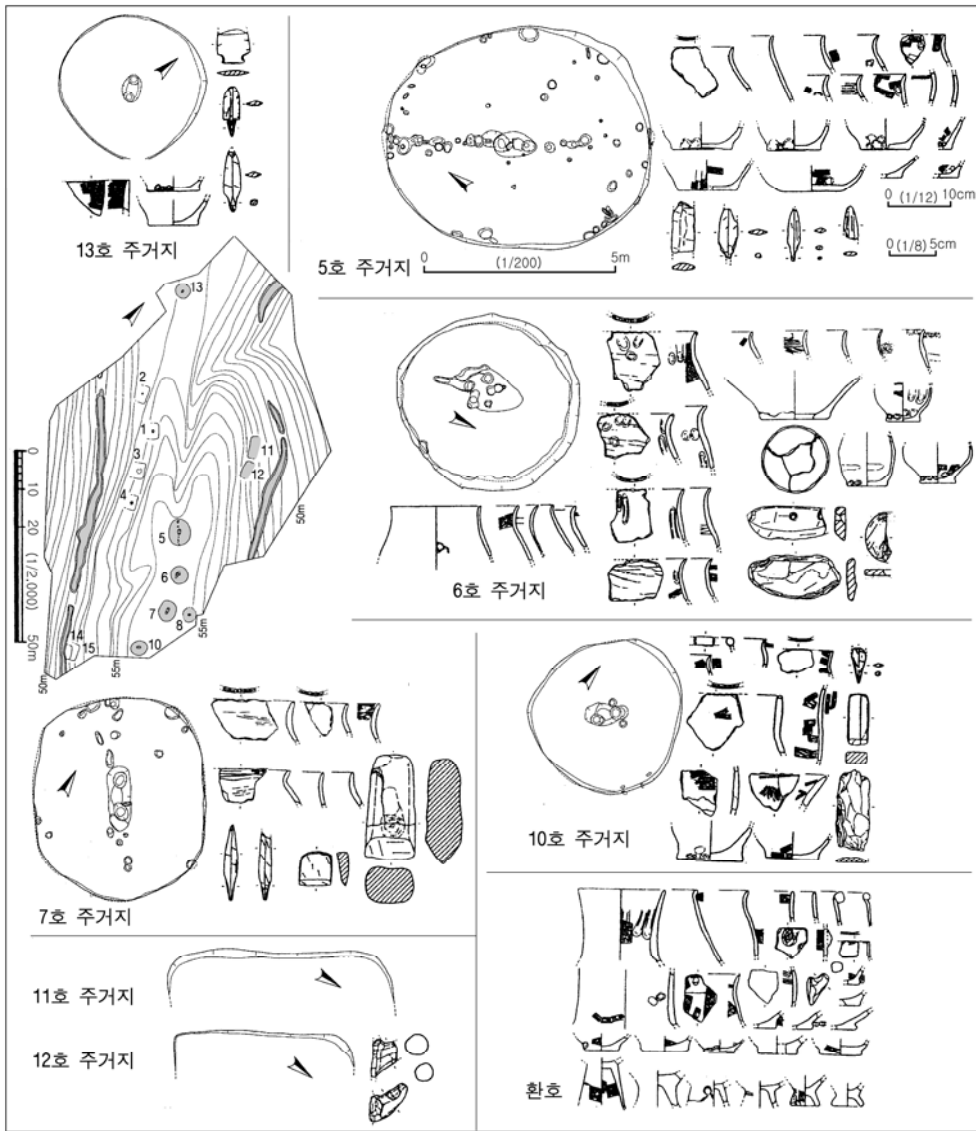
월기리유적은 추동리유적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 이격된 구릉성 취락으로 휴암리식주거지 6기, 송국리식주거지 6기, 점토대토기단계의 장방형주거지 2기와 취락을 감싸는 환호가 확인되었다. 외래계 토기는 10호 주거지(15.1㎡)에서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과 흑색마연 두형토기가, 13호 주거지(11㎡)에서 흑색마연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두 기 모두 소형 규모의 주거지이다. 월기리유적에서 관심의 대상은 조합우각형파수가 나온 12호 주거지와 이와 인접한 11호 주거지의 존재이다. 평면 장방형으로 삭평 유실된 부분이 많아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토대토기단계의 파수가 나온 점, 절대연대가 B.P.2490±80년으로 이른 시기로 측정되어 원형주거지들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외래계 토기가 출토된 송국리식주거지들과 동시기로 판단된다.

월기리취락의 특징은 환호로 둘러싸인 구릉 정상부에 재지계 토기만 출토된 5호 대형주거지(31.7㎡)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계 토기가 공반된 10호, 13호 소형 송국리식주거지는 취락의 변두리에 분포한다. 수석리식주거지로 추정되는 11호, 12호 장방형주거지도 구릉 사면부의 취락 경계시설인 환호에 인접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 즉 외래계 점토대토기문화 주거와 이 문화를 받아들인 재지계 송국리식주거는 취락 내에서 낮은 위상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송국리유형 취락인 서천 오석리유적과 서천 봉선리유적에서도 수석리유형과의 문화접변 양상이 일부 보인다. 오석리유적 95-4호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봉선리유적 3-Ⅲ구역 10호 송국리식주거지에서 두형토기가 나온 것이다.⁶⁾ 취락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유적은 외래문화의 수용 정도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5) 3호 및 7호주거지에서 출토된 石權(崔鍾圭 2009) 혹은 石鍾도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6) 봉선리유적과 같이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없이 두형토기만 공반되는 양상은 부여 송국리 50-1호,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30호 주거지 등이 있다.



〈도면 10〉 서천 월기리취락(재지계) : 외래계 유물 공반, 외래계 주거 공존

IV. 충청서해안지역 재지집단과 외래집단의 상호작용

앞 장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기의 재지계 송국리유형과 외래계 수석리유형의 접촉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집단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토기와 주거에 초점을 맞춰서 타문화의 수용과 관련한 고고학자료의 현상적인 측면을 검토한 것이다.

보령지역에서는 외래계 교성리취락에서 재지계 토기가 공반되었으며, 일부 토기는 재지계와 외래계 토기 제작기법이 함께 적용되었다. 재지계 관창리취락에서는 초대형주거지에서 외래계 토기가 공반되었으며, 교성리취락과 마찬가지로 재지계와 외래계 제작기법이 모방 혹은 절충된 토기도 확인되었다. 관창리취락 가운데 F지구에서는 외래계 주거도 분포하는 점에서 볼 때, 수석리유형의 토기뿐만 아니라 주거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죽리취락에서는 외래계 토기의 공반과 더불어 재지계 토기와 외래계 토기가 같은 가마에서 함께 제작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서천지역에서는 외래계 추동리취락의 경우 재지계 토기가 공반되었으며, 외래계와 재지계 토기 제작기법의 결합현상을 볼 수 있다. 재지계 유적인 도삼리취락과 월기리취락에서는 소형 또는 중형규모의 주거지에서 외래계 토기가 함께 나왔다. 월기리유적의 경우 외래계 주거도 변두리에 분포하지만 취락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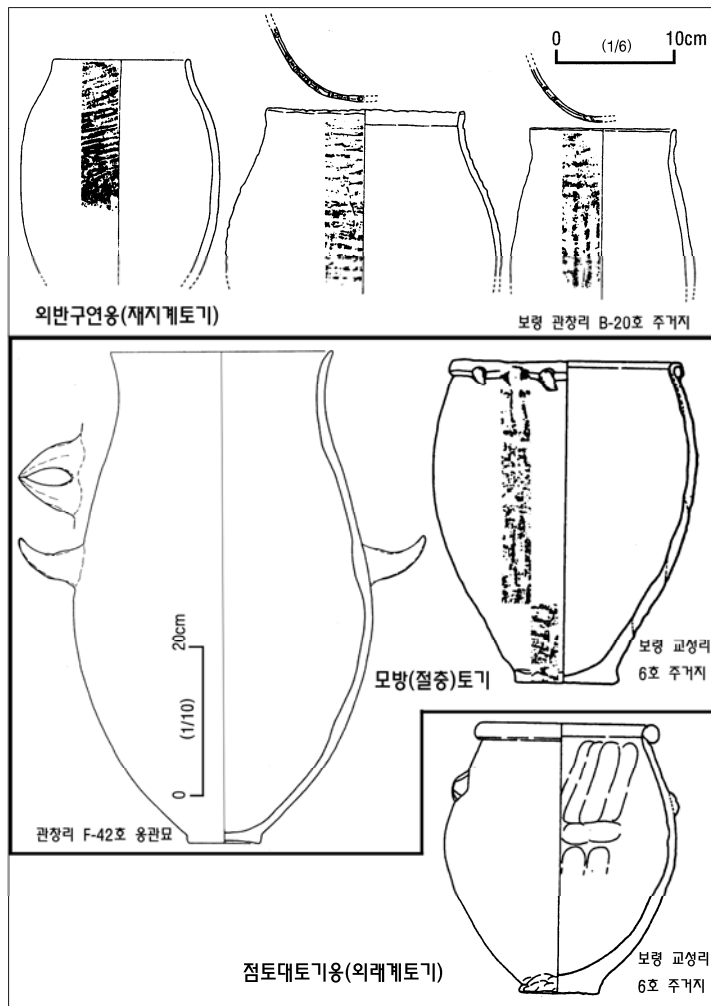
보령과 서천 두 지역을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외래계 취락의 경우 보령 교성리유적과 서천 추동리유적은 재지계 토기의 공반과 모방(절충)토기가 존재한다는 점, 재지계 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음으로 재지계 취락의 경우는 두 지역이 외래계 토기와 외래계 주거를 받아들인 것은 같다. 그러나 보령에서는 재지계 취락 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갖는 초대형주거지에서 외래계 토기와 모방(절충)토기가 출토되는 것에 반해서, 서천에서는 소형, 또는 중형주거지에서 외래계 토기가 확인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보령지역은 재지집단의 상위계층이 외래집단과의 교류에 직접 관여했으며, 서천지역은 일반계층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⁷⁾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지계 취락과 외래계 취락에서 확인되는 물질자료의 교류 흔적을 통해서 볼 때, 재지집단과 외래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궁금하다. 필자는 10년 전에 교성리유적과 관창리유적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 사이의 최초의 교류는 물건(토기, 석기)의 교환 형태이며, 그 이후에 사람이나 기술의 이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李亨源 2005). 현재는 당시의 생각과 더불어, 양 유적에서 일상생활용의 재지계 토기와 외래계 토기의 제작기법이 함께 확인되는 모방 또는 절충토기⁸⁾를 주목하면서 혼인관계에 착목하게 되었다.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기에 나타나는 모방토기는 누가 왜 만들었으며, 이것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이 모방토기를 포함한 무문토기의 제작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 224종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의 성별 분업의 민족지조사에서 토기제작의 여성 점유 비율이 8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한적이지만 일본이나 러시아의 선사시대 일부 유물에서 그 근거가 제시된 것을 토

7) 물론 서천 도삼리취락이나 월기리취락에서 외부집단과의 교류 주체가 일반계층이었을 것이지만, 그 행위는 취락 내 상위계층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서천지역이나 보령지역 모두 현재 발굴된 유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자료의 증가에 수반되어 새롭게 해석될 여지는 남아 있다.

8) 모방토기는 다른 토기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것이며, 절충토기는 서로 다른 복수의 토기제작 전통을 서로 적절하게 맞춰서 제작한다는 의미이다. 초기의 단순 모방은 형태나 문양 등 외향만을 비슷하게 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제작기법까지 유사하게 적용했을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모방토기가 절충토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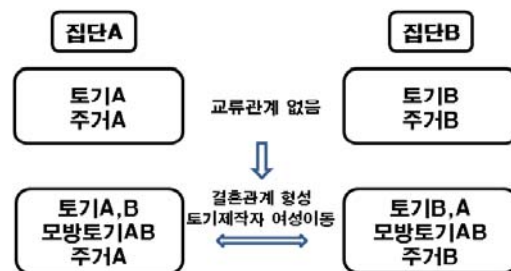


〈도면 11〉 모방(절충)토기 : 재지계 토기(외반구연타날문양)와 외래계 토기(점토대용, 조합우각형파수) 제작기법의 결합양상(S:관창리F-42호용관 1/10, 나머지 1/6)

대로 한다(李亨源 2015b). 물론 토기의 모방이 동경 혹은 호기심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지집단과 왜래집단 양 쪽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용 모방토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혼인관계의 성립과 토기 제작자인 여성의 이동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수의 집단, 특히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류는 물물 교환과 인적 교류가 대표적이며, 이 가운데 후자는 단방향(기술 이전 포함) 이동과 쌍방향 이동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송국리유형의 토착 재지집단과 수석리유형의 외래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인적 교류는 혼인관계 형성이었

으며, 이를 통해서 재지계 토기와 외래계 토기가 절충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충청서해안지역에 이주해 온 점토대토기 문화집단은 선주민집단과 대립관계를 가지면서 고지성 취락에 입지하거나 또는 토착 재지민들과 어느 정도 경계를 두고 거주지를 조성하였다(朴淳發 1997).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 점토대토기문화 유적들의 시간적 위치



〈도면 12〉 일상생활용 모방토기로 본 다른 계통 문화집단 간 혼인관계 형성

상 외래계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산상의 고지성 취락에 정주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입지적 특성상 가경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들의 생계경제는 수렵 또는 채집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므로⁹⁾, 이들은 초기의 긴장, 갈등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전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재지집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다(李亨源 2005). 재지집단 역시 외래집단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기 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응방식을 선회했을 것이다. 양 문화집단 사이의 교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혼인관계의 형성이었으며, 토기제작자인 여성이 타문화집단으로 들어감에 따라 양 문화의 토기제작기법이 공존하는 절충토기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혼인은 보령 관창리취락의 경우는 초대형주거에 거주한 상위계층이 주도한 것이며, 도삼리와 월기리취락의 경우는 중·소형주거와 관련된 일반계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충청서해안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는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물질문화로 구성된다. 중국 요령지역에 계보를 갖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하를 계기로 후기문화가 성립되면서 중기부터 이어져 온 송국리유형과 외래기원의 수석리유형은 공존하게 되었다. 송국리유형의 재지집단과 수석리유형의 외래집단은 계통을 달리하는 문화집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 및 서천지역의 취락들은 다른 문화집단들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양호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집단의 정체성과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토기와 주거의 존재양태를 통해서 볼 때, 이 지역의 재지 선주민집단과 외래 이주민집단은 초기의 갈등·대립 관계를 벗어나 서로 우호적인 친연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나가 혼인의 성립이며, 이는 모방 혹은 절충토기가 갖는 사회적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취락(집단)마다 공동체의 운영 원리 또는 성향에 따라서 대응방식은 달랐다. 외래집단과 상호작용하는 재지집단의 주체세력이 취락에 따라 위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밖에 교류관계를 맺지 않았던 재지집단과 외래집단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화전농경도 상정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國立扶餘博物館, 1987, 『保寧 校成里 집자리』.
- 金範哲, 2001, 「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 연구-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서울학연구』 XVI.
- 金壯錫, 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 朴淳發,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 朴淳發,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 박양진·이재욱·이길성·박미라, 2013, 『保寧 眞竹里遺蹟』, 충남대학교박물관.
-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의 構造와 展開」,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 論集』.
- 서길덕, 2006,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先史와 古代』 25.
- 申英愛,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AF區域 發掘調査報告書』, 亞洲大學校博物館.
- 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이정은, 2011, 『영남 동해안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연대」, 『文化財』 49.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 李亨源,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 李亨源, 2015a,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韓國青銅器學報』 16.
- 李亨源, 2015b, 「粘土帶土器文化 流入期 模倣土器의 社會的 意味」, 『崇實史學』 34.
- 李弘鍾·姜元杓·孫峻鎬, 2001, 『寬倉里遺蹟-BG區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 李弘鍾·孫峻鎬·朴性姬, 2005, 『梨寺里·月岐里遺蹟』,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 李弘鍾·孫峻鎬·趙은지, 2005, 『道三里遺蹟』,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 田鎰溶·李仁鎬·尹淨賢, 2006, 『舒川 楸洞里遺蹟-I 地域』, 忠清文化財研究院.
- 丁女善, 2010, 『中部地方 圓形粘土帶土器文化의 展開過程 研究』,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忠清南道歷史文化院, 2005, 『舒川 鳳仙里遺蹟』.
- 崔鍾圭, 2009, 「石權補完」, 『考古學探究』 5.
- 黃外植, 2008, 『粘土帶土器時期的 聚落類型 研究』, 경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